Buy-back 계약과 Revenue Sharing 계약

② 생성자	째 재환 김
: 태그	경영학

1. Buy-back 계약

Buy-back 계약은 공급업체가 소매업체로부터 팔리지 않은 재고를 특정 가격으로 다시 구매하는 계약입니다. 이 계약의 목적은 소매업체가 재고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주문하게 함으로써 공급업체의 총 판매량을 늘리고, 양측의 수익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.

1.1 이론적 배경

Buy-back 계약은 소매업체의 주문량을 높여 소비자 수요 변동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고, 공급업체는 판매량을 최대화하고 소매업체는 재고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급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. 이 계약은 특히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효과적이며, 소매업체가 팔리지 않은 재고의 일부 손실을 공급업체와 공유하는 모델입니다.

1.2 가격 결정 모델의 수식

Buy-back 계약에서 주요한 가격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도매가격 (w): 소매업체가 제품을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가격
- 소매가격 (p): 소매업체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
- Buy-back 가격 (b): 공급업체가 소매업체로부터 팔리지 않은 재고를 다시 구매하는 가격
- 주문량 (Q): 소매업체가 초기 주문 시 구매하는 수량
- 수요 (D): 소비자의 실제 수요로, Q와 다를 수 있음

이때, 소매업체와 공급업체의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
1. 소매업체의 이익 (π_R) : 소매업체는 판매로 인한 수익과 미판매 재고를 공급업체에 팔아얻는 수익에서 구매 비용을 뺀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.

$$\pi_R = p \cdot \min(D,Q) - w \cdot Q + b \cdot \max(0,Q-D)$$

• 판매 수익: $p \cdot \min(D,Q)$

- ullet 초기 구매 비용: $w\cdot Q$
- 미판매 재고 수익: $b \cdot \max(0, Q-D)$
- 2. **공급업체의 이익 (** π_S **)**: 공급업체는 소매업체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얻는 수익과 미판매 재고를 다시 사들이는 비용을 고려합니다.

$$\pi_S = (w-c) \cdot Q - b \cdot \max(0, Q-D)$$

- 초기 판매 수익: $(w-c)\cdot Q$ (여기서 c는 공급업체의 생산 비용)
- 미판매 재고 Buy-back 비용: $-b \cdot \max(0, Q-D)$

1.3 Buy-back 가격 결정

Buy-back 가격 (b)는 일반적으로 **도매가격 이하로 설정**되며, bbb의 설정은 소매업체가 충분히 주문량을 확보하면서도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Buy-back 가격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.

- 소매업체의 기대 주문량: 소매업체가 재고 부담을 덜 느끼게 하여, 재고를 최대로 확보하게 하려면 b가 도매가격 w와 충분히 가까워야 합니다.
- **공급업체의 부담 수준**: 공급업체는 팔리지 않은 제품을 회수할 경우의 비용을 고려하여 b를 결정합니다.

1.4 구체적 사례

예를 들어, 한 의류 공급업체가 소매업체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Buy-back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합니다:

- 소매가격 (p): \$50
- 도매가격 (w): \$30
- Buy-back 가격 (b): \$20
- 주문량 (Q): 100개
- 실제 수요 (D): 80개

이 경우, 소매업체와 공급업체의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
1. 소매업체의 이익:

$$\pi_R = 50 \cdot 80 - 30 \cdot 100 + 20 \cdot (100 - 80) = 4000 - 3000 + 400 = 1400$$

2. 공급업체의 이익:

$$\pi_S = (30-c) \cdot 100 - 20 \cdot (100-80) = (30-c) \cdot 100 - 400$$

여기서 공급업체는 소매업체의 재고 부담을 덜어주면서 초기 수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2. Revenue Sharing 계약

Revenue Sharing 계약은 소매업체가 제품을 판매한 수익을 일정 비율로 공급업체와 나누는 계약입니다. 이 계약의 목표는 소매업체가 초기 재고 부담을 줄이고 판매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.

2.1 이론적 배경

Revenue Sharing 계약은 주로 소매업체가 제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재고 부담을 덜어주고, 수익을 분배함으로써 판매를 독려하는 데 사용됩니다. 공급업체는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, 소매업체는 초기 재고 비용이 낮아져 판매 촉진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

2.2 가격 결정 모델의 수식

Revenue Sharing 계약에서 주요한 가격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**도매가격 (w)**: Revenue Sharing 계약에서는 도매가격이 일반적으로 낮게 설정됩니다.
- 소매가격 (p): 소매업체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가격
- Revenue Sharing 비율 (α): 판매 수익 중 공급업체가 가져가는 비율
- 주문량 (Q): 소매업체가 초기에 확보하는 제품의 수량
- **수요 (D)**: 실제 소비자 수요
- 1. *소매업체의 이익 (π_R) 는 수익을 나누기 전의 순수익에서 공급업체와 나눈 금액을 뺀 값입니다.

$$\pi_R = (1-lpha) \cdot p \cdot \min(D,Q) - w \cdot Q$$

2. 공급업체의 이익 (π_S) 은 도매가로 판매한 금액과 수익 공유 비율을 통해 나누어진 소매가격의 일부 수익을 합한 값입니다.

$$\pi_S = (w-c)\cdot Q + lpha\cdot p\cdot \min(D,Q)$$

2.3 Revenue Sharing 비율 결정

Revenue Sharing 비율 α 는 소매업체가 재고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급업체가 적절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.

• 수익 균형 모델: 소매업체와 공급업체의 예상 수익이 동일하도록 설정하는 방식입니다.

• **수익 최적화 모델**: 소매업체가 판매를 극대화하고, 공급업체가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상 수요에 맞춘 비율을 설정합니다.

예를 들어, **도매가격이 w = 10**, 소매가격이 p=25일 때 공급업체가 수익의 40%를 나눠 갖는 비율인 α =0.4로 설정하면:

• 공급업체는 판매 수익의 40%와 도매가격으로 소매업체에 초기에 판매한 수익을 가지게 됩니다.

2.4 구체적 사례

한 비디오 게임 공급업체가 소매업체와 Revenue Sharing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합니다.

- 소매가격 (p): \$60
- 도매가격 (w): \$20
- Revenue Sharing 비율 (α): 0.3 (30%)
- 주문량 (Q): 200개
- 실제 수요 (D): 150개

이 경우 소매업체와 공급업체의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
1. 소매업체의 이익:

$$\pi_R = (1-0.3) \cdot 60 \cdot \min(150, 200) - 20 \cdot 200 = 0.7 \cdot 60 \cdot 150 - 4000 = 6300 - 4000 = 2300$$

2. 공급업체의 이익:

$$\pi_S = (20-c) \cdot 200 + 0.3 \cdot 60 \cdot 150 = 4000 + 2700 = 6700$$

Revenue Sharing 계약에서 공급업체는 판매 성과에 따라 수익을 얻게 되어, 양측 모두 이익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.

결론

- Buy-back 계약은 소매업체가 재고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주문하게 유도하며, 도매가격과 Buy-back 가격 설정을 통해 양측의 수익을 조절합니다.
- Revenue Sharing 계약은 소매업체가 초기 재고 부담을 줄여 판매에 집중하게 하고, Revenue Sharing 비율을 통해 양측의 수익을 나눔으로써 판매 최적화를 도모합니다.